

# '30%대' 박스권 넘어라...이재명 '경제 대통령' 성공법 돌파

## 친기업·친시장 행보 가속

### '소부장 3.0 프로젝트'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30%대' 박스권 돌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점차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 후보가 박스권 돌파 여부도 중요 대선 변수가 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6일 "추가 하락세가 이어져 30%대 초반까지 밀리는 조사결과가 계속 나올 경우 빨간 불이 켜지게 되는 셈"이라며 "전략 기조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일단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께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1월 전략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해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던 것은 국민의힘과 후보 본인의 실책 탓이었고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구조"라며 "다자구도라는 구조적 한계상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우리

진영을 향한 국민 지지도와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정체 중인 지지율을 돌파해낼 수 있는 탈출구라는 것이다. 이 후보가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세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주에도 친기업·친시장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 대통령' 부각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금주 중견 기업들과 만나 지난 12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학기술·문화 정책도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대위는 이번 대선 판세의 최대 변수령이 될 '설 연휴'를 앞두고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윤 후보와의 TV 토론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이미 삼프로TV 등을 통해 이 후보의 경제적 식견과 정책 능력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면 대 면' 토론에서는 여론 반향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릉 중앙시장 찾은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 즉석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찾잔속 태풍? 표심 변곡점? ... '토론정치' 대선 변수로

### 이재명·윤석열 '설연휴 전 양자 TV토론' 합의 '대장동 게이트' vs '배우자 리스크' 공방 펼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연휴 이전 TV토론'에 합의하면서 '토론 정치'가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게이트'와 '배우자 리스크' 등에서 공수 포지션을 바꿔가며 장과 방패를 휘둘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재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연설·방송 경험 등에서 달변을 인정받은 이 후보의 우위를 점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경계하는 표정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6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정책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윤 후보가 당 경선에서 10여 차례 토론을 치렀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꾸미지 않은 정직함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을 토론에서 어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국정감사장 등에서 여야 의원들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지지 않고 공방을 주고받았을 만큼 윤 후보가 임기응변과 인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게 선대본부 내 자체 평가다. 여기에 정책 관련 정확한 숫자나 근거 데이터 등을 뒷받침해 수권 능력을 보이는 게 윤 후보 측의 일차적인 토론 목표다. 윤 후보 역시 토론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 사례를 되짚어보면, TV토론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지난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후보 '저격수'로 나서 십자포

화를 퍼부었다. 이정희 후보는 박 후보가 '토론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 기필코 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며 박 후보를 몰아세웠지만 태도 논란 등으로 도리어 보수층 결집의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정희 후보의 날카로운 공격은 박 후보의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2017년 대선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지지율 선두를 다투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V토론에서의 한 마디로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TV토론은 언변과 정책 능력, 호감도 등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종합예술'이라는 말도 나온다. 토론의 성패를 단순히 언변이나 공격력 등으로 쉽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 간 양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론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포함된 다자토론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마의 벽' 뚫고 20%까지...安 '제2 안풍' 불지핀다

### '단일화 없다' 일관된 답변 야권내 골든크로스 기대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 20%' 고지를 목표로 표밭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7%를 얻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불과 한 달 전 같은 기관 조사에서 5%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당 안팎에선 '마의 지지율'로 꼽히는 15%를 넘어 조만간 지지율 20%선도 돌파할 것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 20%'는 안 후보에게 특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선에

서 안 후보의 득표율 21.41%(699만8천342표)를 회복하는 한편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야권 내 보수 표심의 이동을 꺾을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야권 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밀착마크 하며 2012년 처음 정치참여를 선언했을 당시 불었던 '안풍 어게인(安風 Aagin)'을 꺾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책 감수성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지율 상승에 비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론도 힘을 받는 상황이다. 절반에 육박하는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하려면 야권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철수는 없다'는 게 안 후보의 입장이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단일화 관련 질문에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 '참사 났는데 그대로 있기 죄송해 실종자 가족 뵈러 왔다'

###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지난 12일 밤 돌연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침거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선거 일정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사고 현장을 찾아 주변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에타는 심정 이실 텐데 빨리 수색이 완료되기를 바란다"면서 실

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가족들과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다"며 "참사가 났는데 그대로 있기가 죄송해 실종자 가족들을 뵈러 왔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까', '속고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심 후보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겠다"며 "그냥 (사고를 보고만) 있는 게 죄송해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차를 타고 광주를 떠났다.

/연합뉴스

## 여야 '1월 추정' 국회 심사 앞두고 살바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추정'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살바싸움에 나섰다.

양당은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섣불리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뇌관이다. 본예산이 막 집행되는 시점에 추경을 편성

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심사·처리를 속전속결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즉각 추경 협상"을 언급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6일 통화에서 "야당 대선후보가 추경 필요성을 말했는데 당이 엿박

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큰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매표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정 당국이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심본 반영한 선심성 예산을 졸속 편성하러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608조 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1월부터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연합뉴스